

오맹교 선생 소장 고서 전남대 기증



한말의 유학자인 후석(後石) 오준선(1851~1931년)의 5대손 송파(松坡) 오맹교 선생(사진 왼쪽)이 집안에 소장하고 있던 고서와 고문서를 전남대 도서관(관장 홍성식·사진 오른쪽)에 위탁했다.

오맹교 선생은 고서 1245책과 고문서 340여점을 위탁했으며, 이 고문헌은 호남지역에서 활발히 전개했던 한말의 의병사와 지방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자료가 후석 오준선 선생을 비롯해 복과, 춘강, 금석 등의 학자들이 학문과 강학 활동을 하면서 수집했던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석 오준선은 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일제에 대한 강한 배일 의식과 충, 효, 의리관을 강조하며 문하생을 가르쳤던 호남의 대유학자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이영현 회장 전남대 한상포럼 강연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광주시, 재외동포신문, 광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7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사회과 학대학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이영현(사진) 회장을 초청, '제3차 세계한상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영현 회장은 1966년 캐나다 이후 20년 200달러로 사업을 시작, 40여년이 지난 현재 1조원을 돌파한 캐나다 한국 이민사의 신화적 인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강의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한상'의 세계적 위상을 알리고 동시에 취업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국제화 시대 무엇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꿈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들려 줄 예정이다.

김성진 전남체신청장 '일일 집배원'



김성진 전남체신청장이 5일 광주우체국 일일집배원으로 배달현장을 체험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광주시 동구 계림동 750여세대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배달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장비확충으로 배달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취업 바늘구멍 뚫어드립니다”

목포대 청년고용센터 양준성 컨설턴트

“지방대 취업 준비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습니다.”

지난 4일 개소한 목포대학교청년고용센터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을 돕고 있는 양준성(28) 컨설턴트는 “취업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다”고 강조했다.

대학청년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민간 고용서비스기관과 연계해 대학생들의 취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등을 돕자는 취지로 전국 44개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센터로, 목포대가 전국

에서 처음으로 개설했다. 양 컨설턴트가 대학청년고용센터 제1호 취업컨설턴트인 셈이다.

커리어코칭 전문가로 활동해온 양씨는 그동안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취업캠프 운영, 진로특강 등을 통해 직업컨설턴트 분야의 경험을 쌓아왔다.

양 컨설턴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구직기술훈련, 취업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학내 취업 지원프로그램과 수요시장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효

과적인 취업지원과 대학의 취업 역량강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듯 개소 하루 만에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찾아 취업상담과 심리검사를 했다.

그는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나름의 스펙을 쌓았지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 취업기관을 찾아 진로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시간이 쫓기는 학생들 모두가 대상이다”며 “이들의 구직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양 컨설턴트는 “수도권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반면 지



방대 학생들은 취업지원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목포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컨설턴트 전문가이자 취업 선배로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양 컨설턴트는 “학생들이 직업의 선택은 능력이 아닌 ‘흥미’에서 먼저 출발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으면 한다”며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61-450-2905.

선생님의 ‘마지막 가르침’

뇌사판정 비아중 이옥현씨 장기기증

뇌사판정을 받은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육신의 모든 것을 남겨주고 떠났다. 가족들이 교인의 뜻을 존중해 장기기증을 실천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광산구 비아중학교 국어 교사인 이옥현(48)씨가 지난 3일 운동중 뇌졸중 증세로 쓰러졌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난 4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지병인 고혈압을 운동으로 이겨내려다 몸에 무리가 온 것이다.

가족들은 의학적으로만 숨진 교인의 장기를 고심 끝에 병마에 시름하는 환자들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 교사의 교직자로서의 삶을 잇는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교사로 23년 동안 교단에 서면서 항상 제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분”이라며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기꺼이 수술을 허락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4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장기를 때내는 수술을 받았다. 간·신장 등은 서울대

병원과 충북대병원에 인계됐고, 나머지 장기는 조선대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식된다.

동료 교사들은 “학생과 함께하는 모습이 가장 교사다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세가 다른 교사들의 귀감이 됐던 분”이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조선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김성환 교수는 “지난해 광주·전남 장기기증은 9건으로 전국 268건 중 3.5%에 불과했다”며 “선생님처럼 아름다운 분들이 더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친환경 농산물 생산 참살이·수하네농장

농협 ‘이달의 새농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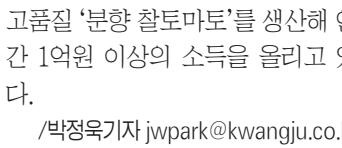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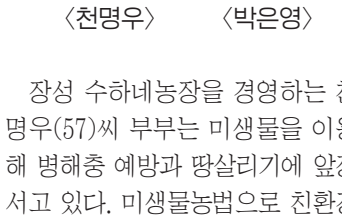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음복)는 5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4월 수상자로 이진복·이인자(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천명우·박은영(장성군 남면 분향리)씨 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7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산포 참살이농장을 운영하는 이진복(54)씨 부부는 저농약인증과 GAP인증을 취득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씨 부부는 알배기배추·수박·청양고추를 1년 3기작으로 재배하는 등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해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나주시지역을 ‘알배기배추’ 주산지로 일구는데 기여했다.

또 나주시 산포농협 시설채소 공선출하회 회장과 작목반장으로 활동하면서 친환경 농업기술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정원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영어방송 내일 2주년 학술세미나

광주전남언론학회(회장 윤석년)와 GFN 광주영어방송(사장 김원욱)은 7일 오후 3시 한국방송광고공사 광주지사 6층 강당에서 ‘광주영어방송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국 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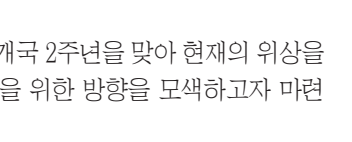
이번 세미나는 광주영어방송 개국 2주년을 맞아 현재의 위상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송사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기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형주 광주영어방송 본부장, 김남일 서울교통방송 TV국장, 신경구 전남대 국제협력부장, 남궁철 동신대 교수, 이동근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5명이 토론에 나선다.

한편 광주영어방송은 광주·전남 거주 및 방문 외국인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영어 라디오 프로그램 제공 및 영어교과 기회 제공 등으로 대표적인 영어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윤석년)



(김원욱)

인사

◆CBS ▲광주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임영호 ▲전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김의양

동구, 주부모니터단 35명에 위촉장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평은 5일 ‘제3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회장 이규숙)’ 단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동구청 제공>

초록어린이재단-송의중 결식아동 돕기 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삼영)와 광주 송의중학교(교장 김해숙)는 최근 나눔 문화 확산과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1318 나눔문화활동 협약식을 맺었다.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조선이공대, 캠퍼스에 꽃나무 3000그루



조선이공대학총장 김양복은 5일 오전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1호관 뒤편 공터에 꽃나무 3000그루를 심었다. <조선이공대 제공>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백종택(화순개인상담 대표)·이순익씨 장남 선계군 흥중용(광주일보 조사부장)·박영남씨 차녀 지영양=10일(일) 오후 12시40분 광주서구 웨딩의전당금호 30층(아시아 나홀). 062-350-3500. ▲김영진(국회의원)·윤순남씨 장남 의경군 신봉용·공영희씨 장녀 언지양=8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63빌딩 2층(그랜드 볼룸). ▲조동락·오세운씨 장남 현승군 신문용(목포대 교수)·정유선씨 장녀 지영양=8일(금)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공향 터미널 3층. ▲정금실씨 장남 손혁군 김정길(김정길내과의원장)·최란희씨 차녀 지원양=9일(토) 오후 3시 서울 노보텔메리어트 강남 호텔 2층(삼배

인홀). ▲김경환·이정희씨 장남 현준(삼진지오텍) 정권태(전남대 보건진료소)·김미애씨 장녀 지현(전남대 언어교육원)양=9일(토) 오후 2시 20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로즈홀). ▲김수국(농협중앙회 상무)·정필연(광주진월초교 교장)씨 장남 윤호군 박동찬(광주MBC 사업국장)·송정(광주보건대 교수)씨 장녀 혜민양=9일(토) 낮 12시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3층(컨벤션홀). ▲박동만·양연숙씨 장남 정현군 조병관(㈜영진에너지 사장)·김효숙씨 차녀 소현양=10일(일) 낮 12시 서울 삼성동 공향 터미널 3층(로즈홀). ▲정명훈(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조애순(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씨 장남 승우군 위이환·김옥분

씨 장녀 현정양=10일(일) 오후 12시30분 광주시 서구 차평동 조선컨벤션 1층(영빈관). 062-370-5442. 중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중친회(회장 정현영) 부산화지시조선산 한식향사 침례 및 거거대교 탐방=6일(수) 오전 6시 광주삼복회관 앞 출발. 010-9615-8567. ▲장흥위씨 광주중친회 2011년도 총회(회장 위인백)=11일(월) 오후 6시 30분 경복궁 웨딩컨벤션 2층 연회장. 011-602-9727.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제1회 광주광역시장애인 생활체육 트레킹대회=23일(토) 오전 9시 장원초등학교(무등산 옛길 1구간) 062-717-7330. ▲광주 무각사 밋고를 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불교 이야기 강좌 1-MBC ‘경제야 놀자’ 우성택의 ‘눔영경’으로 풀어보는 경제이야기=6일~5월 25일(매주 수요일) 오전 7~9시. 무각사 불교대학 강의실 선착순 100명. 수강료 10만원. 062-383-0108.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 무료강좌=13일~5월 25일(오전 9~12시) 일신중학교 도서관 지도교수 조정애. 011-610-6589.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사주 쉽게 배울 뿐 개인·단체 합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리화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활품), 상담, 정보제공 및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弔: 故 姜明宗 公(남/67세) 子/子婦: 조동현/안숙경(대/박순덕, 성현/유선영, 김경민) 女/婿: 조준욱/김동욱, 미숙/김길중, 미라/나동주, 미선/한성환, 미연/최지호. 故 김진영 公(남/53세) 子: 김현호, 정주. 故 김원성 公(남/68세) 子/子婦: 김원철/김명진, 주현/최신화, 女/婿: 김은영/조명철. 故 이옥순 公(남/88세) 子/子婦: 장재금/강신오/이명숙, 학인/이혜란, 女/婿: 김오현/이명원/미선/문순식, 효순/장홍균, 재희/김태영, 연희/조영주. 24시간대기 (062)250-4455